



2020년 1학기
연세대학교회
주일성서연구

정대경 목시
(명지대학교 교목)

성서연구의 주제

악과 고통의 문제

- ❖ "죄의 대가"
- ❖ "사회적인 악과 가난"
-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 ❖ "질병, 죽음, 사별"
- ❖ "종말론과 고난"
- ❖ "욥: 신비와 믿음"
- ❖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신정론(Theodicy) 시리즈 ①

How Long, O Lord?
Reflections on Suffering and Evil

위로의 하나님

D. A. 카슨 지음 | 한 동 수 옮김



C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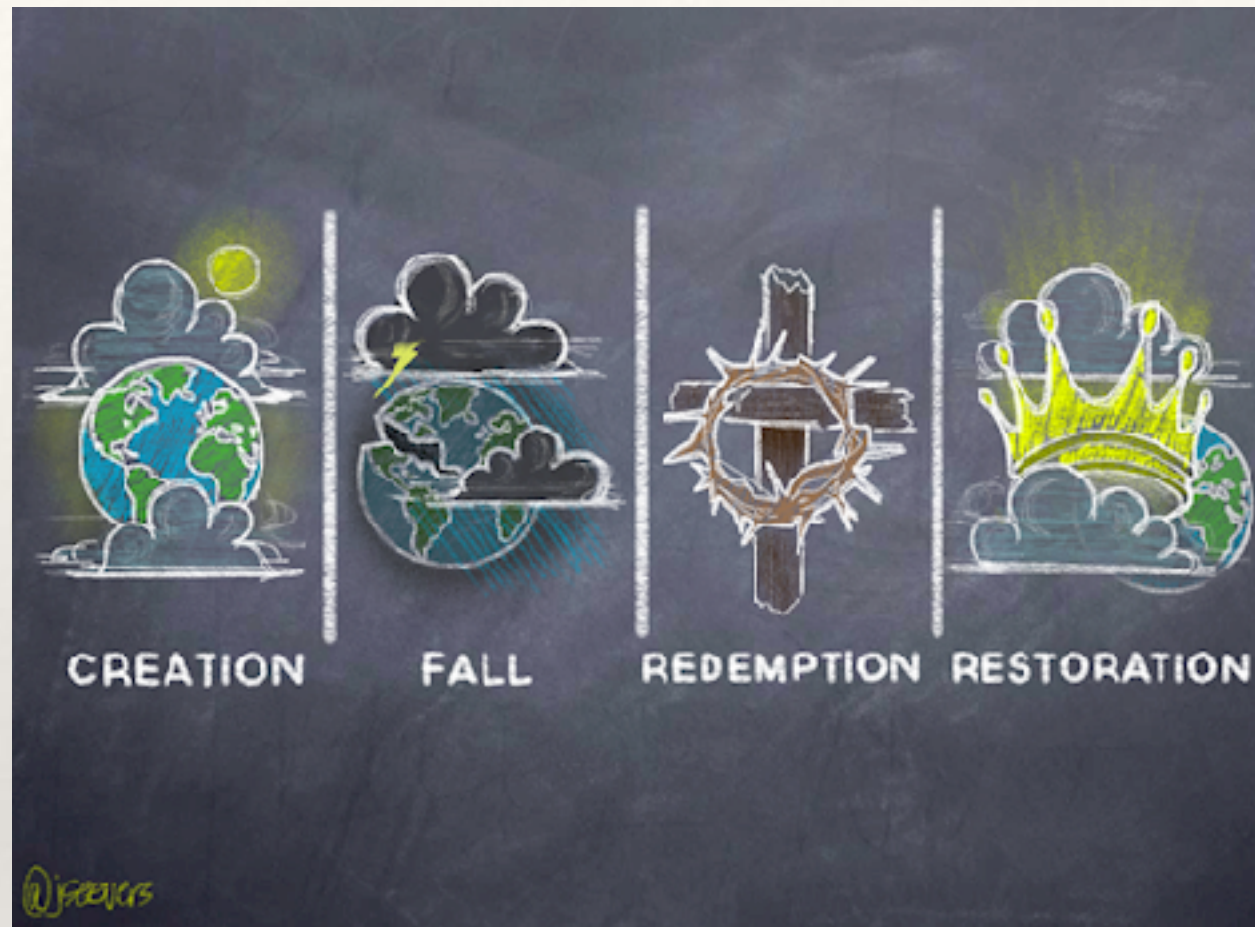


9주차 주제

“욥: 신비와 믿음-2”

1. 욥의 고난과 첫 반응(1-3장)
2. 친구들의 논변과 욥의 항변(4-31장)
3. 엘리후의 논변과 욥의 항변(32-37장)
4. 하나님의 등장과 욥의 고백(38-42장)

들어가며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



“이 책(욥기)이 정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악과 고난의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악과 고난은 어떤 그럴듯한 ‘해법’에 쉽게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 카슨, 241.

신명기적인 이해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주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

1. (엘리후) 욥의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질책

1.1. 엘리후 욥과 세 친구 모두 비판:

- 세 친구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욥 32:3)하기 때문
- 욥은 자신을 변호하다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욥 32:2)고 주장하기 때문

1.2.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욥 33:12

- 욥과 세 친구 모두 인과응보적 사상을 전제함
-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의 문제는 죄와 연관해 단순 이해할 수 없음

2. (엘리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심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욥 33:13

- 욥은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함. 하나님의 침묵, 그의 항변. 욥 7:20, 9:16-19, 10:3, 10:5-7, 10:18...
-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시되,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함. 욥 33:19-25

3. (엘리후) 탄식과 기도는 다름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하므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욥 35:9-12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욥 36:15-16

- 고난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4. 하나님의 등장과 욥의 고백 (38-42장)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이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뜨게 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눈을 쌓아 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네가 북두칠성의 별 떼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큰곰자리와 그 별 떼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델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욥 38장

베헤못 (욥 40:15)과 리워야단 (욥 41:1) - 하나님께 반역하는 원시적인 우주적 세력

4. 하나님의 등장과 욥의 고백 (38-42장)

4.1. 세계 질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고통의 경험에 대해 아스피린적인 효과를 주시려는 의도

4.2. 하나님이 답변을 회피하심. 조지 버나드 쇼, 엘리 위젤

4.3. 하나님의 답변과 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나님 섭리의 신비스러움, 욥의 수용

“이 두 가지 접근 모두 이 책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두 가지 접근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카슨, 278.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 42:5-6”

9주차 성서연구를 나가며

묵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

- 읍기를 통해 묵상과 나눔 해볼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 읍의 번성과 회복은(42장 후반) 진정한 의미의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 읍기가 이야기해주듯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때로 너무 쉽게 자기정죄에 빠지지 않는가?